

# 10년째 5만명 목표... 혁신도시 인구 4만명 힘겹게 유지

### 빛가람동 인구 4만 턱걸이...3년째 3만9000명 오르락내리락 아파트 건설 대부분 이뤄졌지만 인구 유입책은 개선되지 않아 교육발전특구 선정·나주콜버스 운영 등 정주여건 개선 절실

빛가람혁신도시가 지난 2014년 조성된 뒤 11년 만에 인구 4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착공 지연 및 부족한 정주여건, 저출산 등으로 조성 당시 목표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포털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전입 인구는 지난달 기준 4만 124명으로 전월(4만 86명)보다 38명 증가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조성 첫 해 3895명(2014년)을 시작으로 ▲2015년 1만 2452명 ▲2016년 2만 1405명 ▲2017년 2만 8266명 ▲2018년 3만 819명 ▲2019년 3만 2478명 ▲2020년 3만 6284명 ▲2021년 3만 9246명 ▲2022년 3만 9137

명 ▲2023년 3만 9903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인구 4만명 달성을 코앞에 두고도 32개월간 정체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유동성 감소로 전입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저출산 분위기에 인구 증가를 견인할 정주 여건도 미흡했다는 게 지역민들 분석이다.

버스 노선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해결되지 못했고 학령인구 대비 교육시설도 부족해 교육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지역 내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광주 등 인근 지역으로 떠났다. 문화생활공간 부족 등도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는 원인이었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부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부영의 아파트 착공 지연도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라는 말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을 토대로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부영이 아파트 부지 3곳의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데 공사 진척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도.

나주시도 5만명 인구 달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 9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매성초(가칭) 등 학교복합시설 시설 신설에 나선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교육환경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광주 및 나주 구도심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을 늘리고 나주콜버스를 운영,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유치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에도 눈을 돌려 빛가람호수공원 일대에 '어린이 테마파크'와 '어린이스포츠클럽센터' 조성 계획 등을 내놓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1년만에 인구 4만명을 넘어섰지만, 기존 목표 인구 5만명을 달성하지 못해 인구 유입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농어촌공사, 원양산업협회와 동반성장 협약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 한국원양산업협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교환율을 비롯한 고비용·소비집중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산 수산물의 판로개척 및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원양산 수산 식품의 판매와 홍보를 진행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절 수산물 판촉전도 연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전세계 먼 바다 청정해역에서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생산한 원양 수산물에 관심을 갖고 상생협력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aT, 말레이시아 박람회서 K 푸드 수출 총력

### 1700억 달러 규모 상담 성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할랄 산업 선도국가를 상대로 K 푸드 수출 확대에 공을 쏟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최근 '말레이시아 식품 박람회'에 참가, 1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 태국 등 전세계 60개국에서 500여 농식품 기업과 관련 기술 기업들이 참여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딸기, 인삼 제품 등 K-푸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로 K-푸드 영토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수출액은 ▲딸기 3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5.2% ↑) ▲인삼 100만 달러(321.8% ↑) 등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박람회 참가를 위해 농식품

부와 18개 우수 수출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꾸리고 할랄산업 선도국가인 말레이시아 내 K 푸드 수출 확대에 나섰다.

한국관의 경우 QR코드를 활용한 업체별 디렉토리북 제공, 전문 MC를 활용한 시간대별 제품 홍보와 시식 행사 등을 진행해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는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박람회 주최사와 연계해 한국관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고 행사 개최 2주 전 현지 주요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간 사전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였다.

말레이시아 유명 식품 유통업체 바이어 대표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업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더불어 기존 현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차별성이 많아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PS, AI 언어모델 감사기법 도입 감사업무 혁신 박차

### 차세대 AI감사반 킥오프 회의

한전KPS는 인공지능(AI) 거대언어모델을 새로운 감사기법으로 도입하는 등 감사업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5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감사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차세대 AI감사 추진반'이 주요 사항을 점검하는 킥오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

추진반은 선진화된 지능형 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ChatGPT'와 'LLaMa' 등 거대언어모델의 감사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감사업무 단순 안내 챗봇을 넘어 인공지능경망을 통해 패턴을 학습하고, 응대하는 거대언어모델을 감사기법에 접목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세우고 구체



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를 활용할 경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는 "초거대 AI시대로

전환하는 흐름에 발맞춰 감사분야에서도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진화된 기술을 수용하고 내부적 역량을 동원해 차세대 AI감사 추진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인터넷진흥원 사이버 복원력 시험·평가 개발 연구 과제 수주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사업에 따른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 및 복원력 시험·평가 도구 개발' 연구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KISA는 이번 과제를 통해 사이버 복원력 평가 지표 및 도구를 개발하고, 국가의 핵심 인프라 및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보호 등을 위해 개발 결과물을 실증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 연구 기간은 지난월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로, 연구 금액은 57억여 원 규모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운영하는 세종시 등 8개의 수요기업·기관들이 과제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 검증 및 테스트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과제의 주요 내용인 사이버 복원력은 매년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기반시설 및 대국민 서비스의 전산망 장애, 국가 기능 마비 등 사회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